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민 루카 위앵 루카 (1836-1866)

민 루카 신부는 프랑스 랑그르 교구 출신으로 1861년 사제품을 받고, 1865년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되어 백 유스토 신부, 김 헨리코 신부, 서 루도비코 신부와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충청도 내포 지역에 머물며 안 안토니오 주교에게 한국말을 배운 뒤엔 홍주(洪州) 황무실에 부임하여 전교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 안 주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민 루카 신부는 곧바로 자수하였다. 이후, 안 안토니오 주교, 오 오매트르 신부와 함께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온갖 고문을 받은 뒤 다시 갈매곶으로 보내어졌다. 그리고 그해 3월 30일, 그곳에서 군문호수형을 받음으로써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의 나이 30세였다.



성화_보디아니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다니 12,1-3

화답송 시편 16(15),5와 8.9-10.11(1 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히브 10,11-14.18

복음 환호송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음 마르 13,24-32

영성체송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여름 과일



무화과나무

성경에는 “여름 과일”이라는 낯선 명칭이 등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명칭만 그럴 뿐, 우리가 다 아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5-6월에 첫 열매를 맺지만, 8월 중순 이후 많은 양을 수확하므로 “여름 과일”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신명 8,8에서는 무화과를 가나안의 일곱 토산물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는데, 이렇듯 이스라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신탁이나 환시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기원전 8세기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가 본 환시가 일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였다. 그분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으리라’”(아모 8,1-2).

환시에 여름 과일 한 바구니가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상징하는 무화과 바구니가 재앙의 상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이쯔]가 “종말”을 뜻하는 히브리어 [케쯔]와 철자와 발음이 비슷해, 북왕국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구실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수확의 모티프를 농사의 기쁨이 아닌 심판의 의미로 쓴 것으로, 이는 수확의 상징인 타작마당을 평생의 선과 악을

헤아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의 자리로 제시한 마태 3,12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무화과에는 심판의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에덴 동산에서 자라던 것(창세 3,7)으로 낙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유다교에는 무화과가 선악과라는 전승도 있는데요, 원조들이 죄를 지은 뒤 무화과 잎으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기 때문입니다. 곧 선악과를 먹고 죄책감을 느끼자, 다른 나무에서 몸을 가릴 만한 잎을 딴 것이 아니라 곧장 선악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에 비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과를 선악과로 보았는데, 이는 사과를 뜻하는 라틴어 [말룸]이 사악함을 뜻하는 라틴어와 철자가 같아 생긴 전승입니다.

무화과가 지닌 이런 상징성 때문에 옛 이스라엘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를 즐겨 찾아 기도했습니다. 요한 1,47-48에 나오는 나타나엘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을 보자마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찬하셨는데요, 그 실마리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48절). 그는 선악과로 여겨진 나무 밑에 앉아 기도하고 율법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화과가 선악과이든 아니든,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자란 과실수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화과를 먹을 때도 낙원의 열매를 먹는 셈이니 흥미롭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7장 새로워진 만남의 경로 ④ - 기억(記憶)

회칙 「모든 형제들」은, 침묵과 마찬가지로 망각(妄覺) 역시 갈등 해결의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직하고 맑은 기억을 강조합니다(246-249항). 누구도 화해의 필요성을 앞세우면서 고통을 견뎌온 이들에게 사회적 용서를 요구하거나, 상처와 불의(不義)를 덮기 위해 법령으로 포괄적 화해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화해는 인격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회칙은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의 유대인 대학살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 지구촌 곳곳의 지속적 박해, 노예무역, 제노사이드(집단 살해) 같은 비극을 두고 “인간 사악함의 밀바다”(247항)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우리 “인성을 부끄럽게 하는”(248항) 역사적 사건이라 성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런 수치스러운 사건에 익숙해지거나 단련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고, 둘째, 과거 사건에 관한 정직하고 맑은 기억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 언제든지 꿈틀거릴 수 있는 지배와 파괴의 욕망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 아픔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회칙은 피해자들도 개인이든, 사회집단이든, 국가든 “거악(巨惡)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보복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경향”(249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신이 겪은 참사를 증언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작든 크든 그 몸짓으로 연대와 용서와 형제애의 뜻을 택한 선의의 사람들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용서하지만 잊지 않기 (250-54항) : 이제 회칙은 용서를 통한 화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용서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상(無償)의 호의’이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호의를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용서의 도구입니다. 한편, 진심으로 용서하는 이들은 첫째, 잊지 않습니다. 둘째, 내적으로는 자신들에게 큰 고통을 초래한 똑같은 파괴적 기세에 굴복하지 않으려 애쓰고, 셋째, 외적으로는 악순환을 끊어 파괴적 기세를 막음으로써 복수의 정신을 사회에 퍼뜨리지 않으려 결심합니다. 물론 용서가 면책(免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용서는 복수의 소용돌이 또는 망각의 불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범죄의 예방과 공동선 보호의 수단인 정의는 오로지 정의 자체에 대한 사랑과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에서만 정당하게 추구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 관해, 회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양쪽에서 불의가 발생했을 때 어떤 면, 어떤 쪽에서의 불의가 더 심각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불의로 인한 상처와 피해의 규모와 심각함은 각기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역사적 사건에서 한쪽의 부당한 피해만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억울한 희생자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가가 그 조직과 권력을 사용하여 저지른 폭력은 결코 특정 집단이 범한 폭력과 그 수준이 같을 수 없습니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익수(溺水) 사고로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몇 년째 재활치료 중인 20대 여성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봉사자는 의식불명의 외동딸을 간병하느라 어머니가 너무 지쳐서 신부님의 방문과 위로가 꼭 필요하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이런 봉사자의 모습에서 날마다 환자를 찾아 나서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도 주님처럼 딱한 모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아울러 안타까워하는 봉사자에게도 조금이나마 격려를 전하고 싶었다.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병상에 환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입을 벌리고 누워 있었다.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여성이 환자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봉사자의 말 그대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병실에 들어설 때도 아무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보호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더니 내 로만 칼라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맨날 똑같죠.” 한숨 쉬듯 짝막하게 대답한 보호자는 환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마지못해 대답하는 태도에 나는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나는 ‘가뜩이나 힘든 보호자가 너를 반겨 주기라도 하라는 거냐?’라며 서둘러 자신을 꾸짖었다. 하지만 이미 잔뜩 꼬여 버린 마음에 스스로 당황한 나머지, 나는 정신 없이 환자의 임상(臨床)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호자는 ‘차라리 말하기 싫다고 하라’고 할 정도로 한참 뜬을 들인 다음 대답했다. “몇 년 전에 물놀이 갔다가…” 나는 잠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채근했다. “그래서요?” 그리고 다시

한참 기다려서 “물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실랑이하듯 알아낸 임상 정보를 가지고 다른 때와는 달리 제법 열심히 보호자를 위로하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방문을 마쳤다. 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연민의 정이 커지기보다 짜증이 여전한 것에 스스로 놀란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다.

그렇게 며칠 동안 찝찝하던 차에 봉사자에게 연락이 왔다. 봉사자는 환자의 어머니가 ‘이것저것 캐묻기만 하고 진짜 신부 맞느냐?’고 묻더라며 되레 나를 걱정해 주는 눈치였다. 나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CPE(임상사목교육) 자문위원인 정신건강의학 교수에게 물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있는 힘을 다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번번이 상처만 줄까요?” 교수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웃을 ‘예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다. 나도 모르던 ‘어설픈 예수님 흉내 내기’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흉내 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날도 주님께서 환자와 지친 어머니에게 나를 보내시어 ‘당신으로’ 사랑하길 바라셨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돌보겠다는 선의(善意)를 기대만큼 받아주지 않는다며 잔뜩 골을 내고 있었다. 짐짓 자기가 주님인 양 연민 어린 사랑 흉내 내기에 골몰하던 내가 아직 이웃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한 탓이었다. ☹️



교구
소식

[공연] 창작 뮤지컬 <김대건>

일시 11/29(금), 30(토) _ 15시, 19시 [총 4회] 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티켓 R석 2만원 / S석 1만원 예매 플레이티켓 www.playticket.co.kr
 문의 031-850-1433~5 홍보국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 오픈 예정
 업무 청소년(선주민, 이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돌봄, 지역아동사목위원회 소속 단체 지원, 각종 행사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1/29(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조유미 보나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2024 한마음 대림특강

주 제	강 사	일 시	
제1강 빛을 품은 여인 마리아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12/3(화) 14시	12/7(토) 16시
제2강 - 대림 미리보기 대림시기에 대한 개괄적 교리	노경득 블라시오 신부	12/10(화) 14시	12/14(토) 16시
제3강 - 대림 맛보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김경진 베드로 신부	12/17(화) 14시	12/21(토) 16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회비 1인당 6만원 / 화요일과 토요일 중 택 1 (교차출석 가능)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01) 신청 ▶ 
 ※ 매 강의 후 미사가 있습니다. 제2강부터 강의 한 시간 전부터 준비된 고향소에서 고행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145차 ME 주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창세 2,18).
 날짜 12/6(금)~8(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전신자 성경 읽기 11/17(주일)~23(토) : 루카 24,13-35  11/30(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11월 고양-파주 평화지기 월례미사

일시: 11/21(목) 20시 [매월 셋째 목요일]
장소: 백석동 성당 2층 대성당
대상: 평화사도, 민족화해분과장·위원,
평화와 환경 보존에 관심있는 교우 누구나
문의: 031-941-6238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2/6(목) 17시 ~ 9(주일) 16시 [3박4일]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동반자: 조현철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농협: 301-0197-3172-01)
문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12/28(토)~1/6(월) 파주 예수마음배움터
1/16(목)~25(토) 수원 예수회 말씀의 집
2/5(수)~14(금) 수원 예수회 말씀의 집
문의: 02-3276-7794, ciskorprov@gmail.com

희년을 준비하는 기다림과 희망의 대림 피정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5,5).
일시: 12/21(토)~22(주일) [1박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강사: 남덕희 신부 (영성신학 전공) / 회비: 10만원
문의: 031-941-2766, 6634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일시: 11/25(월) 14시~16시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주제: 단테 신곡, 연옥편_칠층산 이야기
강사: 김산춘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서강대학교 법인 사무팀

가정회복 은혜의 낮 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1/18(월) 13시~16:30 (말씀,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11/2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기억의 정화와 순명의 삶
강사: 최영준 베르나르디노 신부 (작은예수회)
문의: 010-2127-003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II
12/20(금)~22(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영성과 함께하는 몸 비우기

일시: 12/6(금)~9(월)
장소: 강화도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주제: 영육간의 건강을 효소로 다스리는 피정
비용: 42만원 (효소비 5일분 포함)
문의: 010-9363-7784

수도자와 함께하는 성탄 피정

날짜: 12/23(월)~25(수)
장소: 연천 착한 의견의 성모수도원
주제: 별을 따라서 / 회비: 25만원
문의: 031-834-1262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일시: 11/30(토) 14시 ~ 12/1(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박창환 가밀로 신부
버스: 조치원역 신한은행 앞 (19시 출발)
고속버스터미널별 다이소 맞은편 (19:20 출발)
문의: 043-213-9103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12/7(토)~9(월)
한라산눈꽃산행: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추자도포함: 12/1(주일)~4(수)
연말연시(한라산): 12/30(월)~1/2(목)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날짜: 12/1(주일)~3(화), 12/6(금)~8(주일)
연말연시(한라산): 12/29(주일)~1/1(수)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1/24(금)~26(주일)
접수: 064-796-4182, 02-773-1455

골롬반 청년 대림 피정

일시: 12/14(토) 10시~17시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4세 신자
신청: bit.ly/골롬반청년피정12
회비: 1만원 (현장 납부, 점심식사 포함)
문의: 010-5033-9302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교육 · 모집 ▶▶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5학기)
모집: 오르간, 작곡(CCM 작곡 포함), 합창지휘
접수: 12/2(월)~13(금)
전형일: 1/10(금) 최양업홀 (충정로역, 서울역)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5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접수: 11/25(월)~12/5(목), 전형일: 12/14(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가톨릭신문사 신입기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접수: 11/29(금)까지
※ 홈페이지 www.catholictimes.org 참조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1/24(주일) 14시	서울 보문동 수녀원	010-9353-1773 (사전 연락)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소부

필리핀 캠프 인솔 선생님 모집

업무: 청소년 인솔 및 생활 관리
혜택: 영어 연수 경비 전액, 봉사 인증서
대상: 12/28(토)~2/22(토) 출국 가능한 대학생
문의: 053-593-1273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202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접수: 12/31(화)~1/3(금) 인터넷 접수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신앙교육원 사무장 모집

자격: 건진성사 받은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추천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12/2(월)까지 (11/27 우체국 소인까지)
방법: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0(월) 이탈리아 일주 (희년 전대사)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일시: 월~금, 10시~16시
내용: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문의: 02-990-9366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025년 희년(희망의 순례자들) 특집 성지순례
1/6(월)~16일(목): 새해맞이 이탈리아 (KE항공)
1/13(월)~17(금): 일본 북해도 (KE항공)
1/17(금)~24(금): 멕시코 과달루페 (AM항공)
1/28(화)~31(금): 설특집 일본 나가사키 (OZ항공)
2/3(월)~14(금): 이집트 (EK항공)
2/13(목)~24(월): 남부스페인~포르투갈 (KE항공)
선착순 신청 마감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제25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1/15~2/4) [3주]: UCLA·UC버클라·스탠포드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디즈니랜드,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1/11~2/4) [4주]: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워터파크,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문의: 02-734-0999, cpbccamp.com

교구성지순례 &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탐방

12/14(토)~17(화): 대전 23곳
4/23(수)~27(주일), 7/5(토)~9(수): 울릉도~독도
출발: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2/5(수)~10(월): 베트남수도원 (다낭, 라방, 짜끼우)
5/3(토)~18(주일): 동유럽 (체코, 폴란드, 메주고리에)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사수녀회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2(수) 성모님 발현지 (대한항공, 12일, 495만원)
2/24(월), 3/3(월) 출발특가: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385만원)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3/26(수) 이탈리아 일주 (대한항공, 9일, 419만원)
4/22(화) 이탈리아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3/30(주일) 출발 / 회비: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DIocese of Uijeongbu

여행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날짜: 12/14(토), 1/11(토) [당일], 1/25(토)~26(주일) [1박2일]
회비: [당일] 5만원 / [1박2일] 10만원(성인), 7만원(청소년)
장소: 민족화해센터 /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전시

구구절절 The story - 감성을 담다 展

서양화 단체전
일시: 11/9(토)~29(금) 10:30~17:30 (매주 월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장례 미사

11월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며,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령 성월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예부터 죽은 이를 위한 장례를 정성껏 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장례 예식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하나가 된 신자들이 죽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건너가도록 도와줍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은 장례 예식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지니는 파스카적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81항 참조). 이는 중세의 중·후기를 거치면서 죽음에 관한 속죄와 참회의 측면이 강조되었고, 그 영향으로 초기 교회부터 간직해오던 파스카적 요소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69년 8월 15일에 개정·출간된 「장례 예식」에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그리스도 파스카와의 연관성 안에서 설명합니다. 또한 예절 형식에 있어서는 지역 풍습과 사목적 필요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장례 미사는 평일이든 주일이든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대림·사순·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드리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날로 옮겨야 합니다. 부득이 미사가 아닌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말씀 전례와 고별식을 해야 합니다.

장례 미사는 고별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별식은 죽은 이를 정화하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죽은 이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예식입니다. 죽은 이의 정화는 앞서 거행되는 성찬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고별식은 ① 사제의 권고, ② 침묵 기도, ③ 성수 예식, ④ 분향, ⑤ 고별 노래, ⑥ 사제의 기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성수 예식은 죽은 이가 세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분향은 죽은 이의 육신이 성령의 성전이었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별식은 시신을 모신 장례 예식에서만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골만 있거나 시신이 없는 경우도 고별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엔 기도문을 알맞게 바꾸고, 유골까지 없을 땐 성수 뿌림과 분향을 생략합니다. 참고로, 모든 장례 예식은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타깝게도 신자인데도 제대로 된 가톨릭교회의 장례 예식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은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최선의 배려이고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영혼은 정화되어 성인 성녀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 육신은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이들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과 친지, 친구들의 신앙과 관심으로 한 사람의 교우도 빠짐없이 가톨릭교회의 보화를 누리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세상을 떠난 이와 유가족을 위하여 애쓰는 연령회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